퀀틴전시 플랜

완화적 FOMC 에도 증시가 흔들린 이유

FICC 리서치부

정해창 / Strategist Jr.
haechang.chung@daishin.com

이경민 / Strategist
kyoungmin.lee@daishin.com

[Key Point] 12월 FOMC, 우려와 달리 비둘기파가 되어준 파월

- 연준이 12월 FOMC에서 예상대로 3회 연속 금리인하를 단행. 비록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범위에 들어섰다는 코멘트도 있었지만 이미 매파적 금리인하가 시장에 선 반영 되어있던 상황
- 파월 의장은 금리인상을 고려하는 위원이 없다는 코멘트로 금리인하 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
- 예상 밖의 결정은 단기 유동성 공급 조치. 연준이 12월 1일 QT종료에 이어 월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채 매입 개시. 이는 2022년 3월 QE종료 이후 약 3년 만에 연준의 자산 매입이 재개된 것
- 이로써 10월 말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의 조정 원인이던 단기 유동성 부족 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
- 다만, 추가 금리인하가 제한된다면 금리인하 사이클 정점 통과 우려. 이에 따른 차익실현 수요 존재

[Issue 1] 글로벌 증시 하락 트리거는 엔캐리 트레이드 되돌림 우려?

- FOMC 이후 상승하던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약세 전환, 미국증시 선물과 일본증시 -1% 전후 하락
- 연준의 금리인하 이후 다음주 19일 BOJ의 금리인상이 예상되면서 미-일 금리차 축소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되돌림 우려 자극, 전일 157엔에 근접했던 달러-엔 환율은 장중 155.5엔까지 하락반전
- 다만 BOJ의 사전 발언으로 엔화 강세 우려가 시장에 선반영 되어있는 상황. 한국정부는 거시금융 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여 FOMC 이후 국내외 금융 및 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조치
- 최근 일본 동북부 지진 경보 등 심리적 불안정 요소 역시 우려를 확대. 일본 기상청은 지진 주의 경보를 16일 0시까지 발령했으며, 해당 기간 중 1% 확률로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정보를 제공
- 충격적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엔화강세는 점차 해소될 수 있는 단기 불안요인으로 판단

[Issue 2] 코스피 하방압력, 반도체 업종의 악재와 SK하이닉스의 투자경고 지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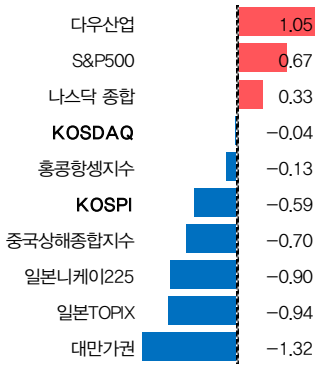
- 오라클의 실적 미스.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매출이 160.1억 달러로 예상($162.1억) 하회, 특히 잉여현금흐름이 -100억달러로 예상치 -52억 달러를 크게 하회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재점화
- 오라클은 시간외에서 -12%대 급락, 엔비디아, 코어위브 등 일제히 하락 중
-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한국 거래소로부터 투자 경고종목으로 지정, 추가 급등시 거래 정지 우려와 신용융자 매수 중단으로 인한 매수압력 약화

  반도체: SK하이닉스(-3.8%), SK스퀘어(-5.1%), 삼성전자(-0.7%), 한화비전(-5.3%) 등

퀀틴전시 플랜 자료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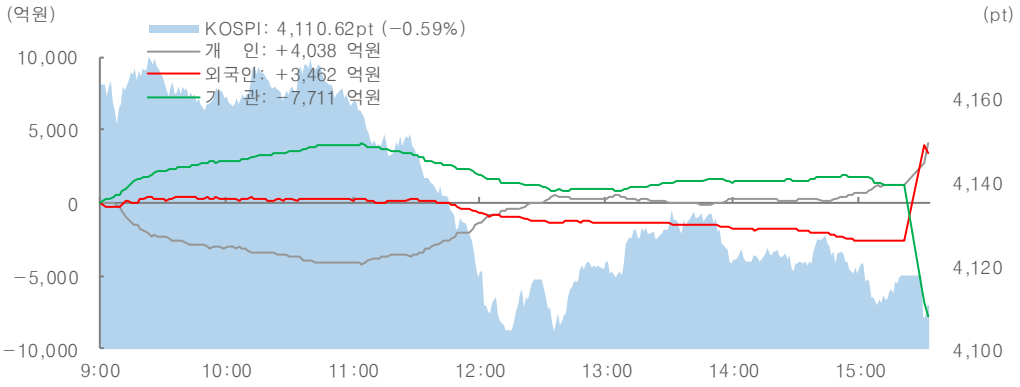
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대신증권 리서치 소속 **퀀트**, **전**략, **시**황 애널리스트의 현재 시장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담아낸 자료입니다. 매일 이슈에 대한 분석과 시장 리뷰, 확인해야 할 데이터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

글로벌 증시 수익률 (%)



주: 아시아 증시 마감 전 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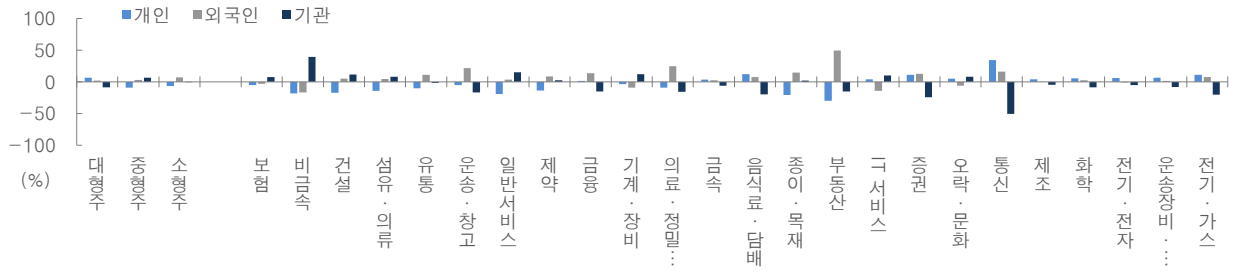
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



자료: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업종별 수익률

업종별 순매수 상대강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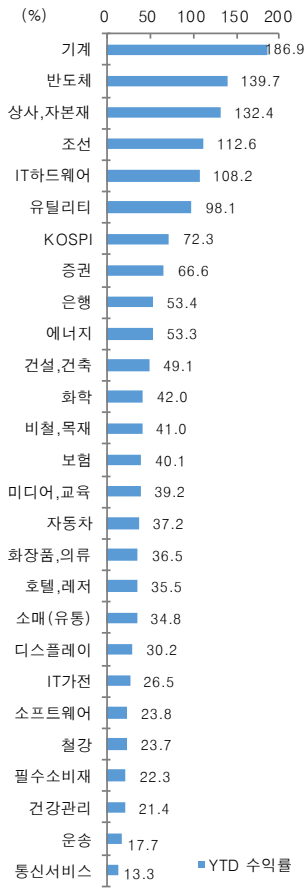
자료: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* 순매수 상대강도 = 주체별 순매수금액 / 20 일평균거래대금

KOSPI, 업종별 수익률 추이

주요 지수	전일종가 (p)	1W	1M	3M	6M	12M	YTD
KOSPI	**4,135**	**2.5**	**1.5**	**24.8**	**44.0**	**71.0**	**72.3**
에너지	4,999	0.4	−2.4	17.2	28.5	48.9	53.3
화학	4,910	1.1	−0.7	27.0	46.0	35.4	42.0
비철,목재	7,709	9.2	28.5	35.6	56.8	4.0	41.0
철강	2,212	2.1	2.7	5.3	13.8	16.3	23.7
건설,건축	1,532	0.0	4.1	−2.1	−0.9	48.3	49.1
기계	9,461	1.8	−3.8	22.9	56.5	197.4	186.9
조선	9,320	4.9	−1.2	8.2	37.8	149.2	112.6
상사,자본재	3,374	2.8	2.1	17.9	29.0	140.2	132.4
운송	1,722	0.9	3.4	−7.9	−2.2	15.2	17.7
자동차	11,933	8.3	11.9	23.6	38.4	38.7	37.2
화장품,의류	5,023	−0.9	3.6	−2.6	1.7	34.8	36.5
호텔,레저	2,261	−1.8	5.9	−0.9	13.4	31.7	35.5
미디어,교육	748	0.5	−0.7	1.2	−1.5	37.7	39.2
소매(유통)	2,037	−3.5	5.4	9.5	4.3	31.7	34.8
필수소비재	6,844	−2.1	−0.3	−1.8	4.9	19.4	22.3
건강관리	10,604	0.5	13.0	21.6	25.4	26.9	21.4
은행	2,648	−3.8	−1.5	5.8	16.9	49.3	53.4
증권	2,196	−2.6	−6.7	−2.7	16.6	65.4	66.6
보험	10,081	−2.0	−5.1	−2.3	18.7	35.9	40.1
소프트웨어	7,185	−0.9	−3.8	−0.1	11.1	17.3	23.8
IT하드웨어	1,489	2.9	16.9	50.0	100.2	120.8	108.2
반도체	18,736	4.5	2.9	63.3	104.7	139.1	139.7
IT가전	2,145	4.3	−0.5	39.8	59.7	19.0	26.5
디스플레이	756	−0.7	−6.6	7.2	30.2	32.0	30.2
통신서비스	368	−1.3	0.9	0.6	3.9	11.9	13.3
유틸리티	1,434	−1.9	5.1	19.5	55.6	93.5	98.1

기준일: 2025.12.10. / 주: Top 5, Bottom 5
자료: FnGuide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KOSPI, 업종별 YTD 수익률



[Compliance Notice]

금융투자업규정 4-20 조 1 항 5 호 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 (담당자: 정해창, 이경민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